

EU 상표·디자인 25개국 보호시대 개막!

지난 5월 1일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 이미 등록되어 1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EU에 새로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에까지 보호되게 되었다.

원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제도는 스페인(Alicante)에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직접 혹은 각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등록될 경우 15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되는 제도였으나, 중·동유럽 중심의 10개국이 EU에 추가로 가입하여 EU 회원국이 총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도 25개 EU 회원국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은 우리 기업의 EU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이미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한 우리나라의 기업은 새로운 EU 회원국에 별도의 상표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필요가 없으며, 특허청에서 작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가들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보호범위 확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U 회원국내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위조 반도체 칩' 방지 위해 국가적 대응 필요

세계 반도체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범람하고 있는 중국의 위조 반도체 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인 MCP(멀티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세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반도체협회(WSC 총회)'에 참석한 주요 반도체업체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업체들이 생산하는 위조 반도체 칩을 방지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업체별로 자국 정부에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시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 인피니언 등 선발업체 제품을 복제해 브랜드까지 위조해 붙여 저가로 판매하는 위조 칩들이 범람하고 있다. 또 MCP(다중멀티칩·Multi Chip Package) 제품과 관련해 현재 사용되는 세계 공동상품분류체계(HS)가 반도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MCP 제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철폐를 주요 국가에 요구하기로 했다. MCP란 D램, 플래시메모리 등 각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반도체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은 총회 후 연 기자회견에서 '올해도 플래시 메모리 가격을 30~40% 인하할 것'이라며 '플래시 메모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플래시 메모리 급성장에 이어 시스템 LSI 부문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D램 가격 상승을 배제하더라도 올해부터 당분간 한국의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사장은 '2006년 이후 반도체 경기하락 전망이 제기되지만 D램만 해도 게임기, 모바일기기, 디지털 컨슈머기기, 휴대폰 등 적용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의 다양화를 감안하면 당분간 안정적인 반도체 경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의 제소는 문제될 게 없고 플래시 메모리, D램 등에서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되고 있다'며 '미국 특허출원 순위에서 2006년에는 2위에 오르는 등 앞으로 반도체 특허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총회에는 모리스 창 대만 TSMC 회장, 스티브 애플턴 미국 마이크론 회장, 카오루 도사카 일본 NEC 사장, 스콧 맥그리거 필립스 사장, 사토루 이토르네 사스 사장, 윌러드 코리건 LSI 로직 회장, 프랭크 황 파워칩 회장 등 세계 반도체 분야 거물 70여 명이 참석했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발명가의 10대 자세 ⑩ 김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발명에는 아리송한 답도 있다

발명가의 10대 자세도 드디어 10번째 차례가 되었구나!

저는 10 개명이나 10대 자세중에 하나도 실천 못했어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란다. 서서히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 나가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아이 귀찮아!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10번째 자세의 내용은

'발명에는 아리송한 답도 있다.' 란다.

즉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세가 중요하지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10번째 자세의 내용은

즉 발명은 수학문제처럼 정답이 단 하나인 것이 아니라 몇 개든지 존재할 수 있단다.

가령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질문에 단 한가지 도구가 아닌

여러가지 도구가 등장하지 않니 성냥, 라이터, 전기로 인한 전구 등등.

즉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의 정답' 만을 찾는 습관은

사고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요구하는 세대에 편승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처사인 것이지

이와 같이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를 고집하여 다른 아이디어와

어우러지지 못하면 발명의 여러가지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라네.

각종 발명품.

오호 이런 맛이 ~!!

따라서 발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리송한 답도 구하고

또 이 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 등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

자, 이렇듯 발명의 10대 자세에 대해 알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본인의 자세란다

박사님-!!

실문인가?

아뇨, 질문은 없구요 원지 마우리에 박사님을 안 외치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서요-!!